

대학생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가치관 연구

홍성애¹, 윤혜려²✉

¹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²공주대학교 식품과학부

A Study on Family Values Influencing on University Students' Childbirth Intention

Seong-Ae Hong¹, Hei-Ryeo Yoon²✉

¹*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²*Division of Food Service Management and Nutri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re's an opinion that it may be a combination of change of values and social · economic factors that caused low fertility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actual conditions of family · children values and gender role centered on university students in a marriageable age so draw a policy implication for overcoming low fertility.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like following. First, as for analysis of childbirth intention shows average score of 3.35 ± 1.142 presented sex distinction that men have a higher tendency to women. Second, in gender role attitudes, it shows that gender role related on women's social activities(2.06 ± 0.739), traditional gender role in family(2.41 ± 0.789) influence on childbirth intention ($p < 0.001$). Third, in family · children values indicates moderate scores(2.95 ± 0.648) that son's position in family (2.33 ± 0.911), relation between children and parents(2.80 ± 1.050), individual's position in family(3.56 ± 0.671) influence on childbirth intention($p < 0.000$) in the traditional values. 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will prove effective when family values are established favorable to marriage, childbirth, rearing, gender equality is settled in a society as a whole and related systems.

Key Words : Childbirth Intention, Family Values, Gender Role Attitudes

I.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 수준은 1983년 이래 빠르게 감소하여 합계 출산률¹⁾이 2003년에 1.19명, 2005년에는 1.08명, 2008년에는 1.19명, 2010년에는 1.15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1].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는 2017년에 4,932만 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2],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의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과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재정수지 악화, 사회복지비용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3].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악화시켜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낮추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인 측면에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5년 이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채택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며, 가족 친화적·양성 평등적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전략을 펴하였다[4]. 제1차 기본계획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출산률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5].

최근의 한국 사회 저출산 원인으로 가치관 변화가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과 가치관 자체보다는 사

회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미흡에 기인한다는 신가정경제이론식 주장이 상존하고 있으나 [6], 가치관과 사회경제적·제도적·구조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치관 중 결혼·출산을 포괄하는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혼인연령의 상승, 미혼인구의 증가, 이혼의 증가,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 등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7]. 그러므로 저출산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가치관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가치관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가풍, 가훈과도 연결되며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고 미래의 생활철학과 관련되어 가족을 통합하며 가족원의 의식 등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가 자신의 가족을 설립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해주는 개념이다 [8]. 가족가치관은 결혼, 동거, 이혼, 출산, 자녀양육, 동성애, 성역할 등 그 영역이 넓다[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 중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가족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은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가사분담, 출산과 육아의 공유 등에서 여성은 남성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다[9]. 이에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태도 수준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관 형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건전하고 건강한 가치관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초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가족가치관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출산률 저하는 유배우 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혼자의 결혼 연장 또는 독신생활에서 기인하는

1)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TFR, 인구동향조사 2009년) : 한 여자가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임.

것으로 나타나[10],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연령대의 가치관을 미리 파악하여 출산의도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출산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므로, 출산을 개인이 선택한다는 관점에서 출산의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출산은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고, 출산의도를 가진 후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출산행동이 나타나는데, 출산의도는 상당히 정확하게 출산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1], 대상자들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치관 요인들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저출산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저출산과 관련된 연구들은 저출산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8][10][12]가 대부분이며, 출산정책에 대한 고찰[12][13]을 다루는 연구들과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6][8]도 있는데, 이들 연구들은 주로 기혼과 미혼을 동시에 다루고 있거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14]도 있다. 특히 출산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출산의도를 파악하는 연구들로는 사람들의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 중 계획된 행위이론을 이용하여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로 여성들의 출산의도를 파악한 연구[15]와 결혼과 출산에 대한 환경적·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16]가 있다. 하지만 출산의도를 파악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출산이 가족생활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의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가족가치관과 출산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결혼 및 출산 적령기에 들어가는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가치관 요인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는 가족

친화적·양성 평등적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저출산현상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도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출산의도에 따른 가족가치관(성역할 태도, 자녀·가족관)의 수준을 파악한다.

셋째,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가치관(성역할 태도, 자녀·가족관) 요인을 파악한다.

넷째, 긍정적인 가족가치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밝힌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을 분석한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이며, 서울, 대전, 공주, 청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할당표집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우선 시·도별로 도시규모를 고려하여 8개 대학교의 학생으로 정하고 남·여 비율을 적절히 배분하였으며, 동의서에 서명한 400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9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 동안이었으며, 현장에서 응답하게 하고 바로 수거하여 회수율을 높였다. 설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 기입법으로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정확한 응답지를 제외한 345부(회수율 86.3%)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이미 개발된 설문도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알맞도

록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타당성은 사전 테스트를 통하여 보완하여 수정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2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성역할 태도에 대한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둘째, 가족과 자녀가치관에 관한 13문항들이다. 질문 척도의 수준은 5점 척도 Likert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척도의 기준은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1) 성역할 태도 지각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Sex-Role Orientation Scale (SRO, Osmond & Martin, 1975) 32문항 중 16문항과 Sex-Role Ideology Scale(SRI, Mason & Bumpass, 1981) 17문항 중 5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한 선행연구[17]의 설문지 중 20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성역할태도를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여성의 직업역할에 대한 태도 7문항, 남녀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태도 6문항, 가정역할에 대한 태도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별 동의하는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높은 점수일수록 전통적인(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현대적인(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2) 자녀·가족관 지각

자녀·가족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선행연구들[18]과 문헌연구를 통해 수정·보완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별 동의하는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높은 점수일수록 전통적인(보수적인) 자녀·가족관을 갖고 있는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현대적인(진보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척도들의 타당성과 요인별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신뢰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족관의 구성요인을 확인적 요인분석하였다. 요인수를 최소화하면서 정보의 손실을 최대한 막고 측정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수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회전방식으로는 문항들의 요인분류를 명확히 해주는 직교회전(Varimax)을 이용하고, 분석과정에서는 초기 요인적재치가 0.5미만인 문항을 제거하고 각 요인의 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을 모두 추출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하여 독립검정 t-test와 일원분산(One way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역할 태도와 자녀·가족관의 구성요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넷째, 출산의도에 따른 성역할 태도와 자녀·가족관의 차이분석을 위하여 일원분산(One way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출산의도에 따른 각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Scheffé's test를 통하여 집단 간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다섯째,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은 95% 신뢰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도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출산의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은 여자가 56.8%를 차지하였고, 남자가 43.2%이었으며, 출산의도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 학년별 구성은 2학년 32.2%, 3학년 29.3%, 1학년 23.8%, 4학년 14.2% 순이었으며, 출산의도는 차이가 없었다. 가족 구성은 양부

모 모두 생존한 군이 89.9%를 차지하였으며, 출산의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화목 여부에서는 화목하다는 응답이 화목하지 못하다는 응답보다 우세했으나 출산의도는 차이가 없었다. 학교에서 '결혼이나 가족' 수강과목이 개설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는 응답이 68.1%를 차지했으나, 수강과목 개설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의도는 차이가 없었다. 가족 중 가장 친밀한 상대는 엄마가 6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동성형제가 12.0%, 아빠 7.3% 순이었으며, 이에 따른 출산의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출산의도는 차이가 없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출산의도 비교

특성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t/F	p
성별	여자	195(56.8)	3.11±1.56	-5.654	0.000
	남자	149(43.2)	4.03±1.37		
학년	1학년	82(23.8)	3.56±1.58	1.329	0.259
	2학년	111(32.2)	3.38±1.60		
	3학년	101(29.3)	3.44±1.62		
	4학년	49(14.2)	3.50±1.29		
가족구성	양부모생존	309(89.9)	3.48±1.55	-0.468	0.640
	편부모나 기타	29(10.1)	3.62±1.70		
가족의 화목	화목한 편	260(75.6)	3.48±1.53	-0.585	0.559
	보통 이하	84(24.4)	3.60±1.64		
'결혼이나 가족' 수강과목 개설	있다	108(31.9)	3.41±1.49	-0.735	0.463
	없다	231(68.1)	3.54±1.60		
가족 중 친밀상대	엄마	217(63.5)	3.33±1.17	1.174	0.320
	아빠	25(7.3)	3.36±1.11		
	할머니	4(1.2)	3.00±1.41		
	할아버지	2(0.6)	4.50±0.71		
	동성형제	41(12.0)	3.17±1.05		
	이성형제	18(5.3)	3.83±1.10		
	기타	35(10.2)	3.46±1.14		

2. 조사대상자의 출산의도와 성역할 태도, 자녀·가족관 수준

조사대상자들의 출산의도와 관련요인들의 수준은 <표 2>와 같다. 출산의도는 3.35±1.142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성역할 태도는 전체적으로 2.20±0.708의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 대해 파악한 결과, '사회에서의 성역할 태도'는 2.08±0.750로 나타나 성역할 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정에서의 성역할'도 2.14±0.799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양육에서의 성역할은 2.50±0.795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성역할 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가족·자녀관은 2.95±0.648로 보통 정도의 수준을 보였으며 하위영역에 대해 파악한 결과, '가정 내 아들 위치'는 2.33±0.911로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와 부모 관계'는 2.80±1.050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가정에 대한 의식'은 3.56±0.671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출산의도와 관련요인들의 수준 비교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출산의도	출산의도	3.35±1.142
성역할 태도	사회에서의 성역할	2.08±0.750
	가정에서의 성역할	2.14±0.799
	양육에서의 성역할	2.50±0.795
	계	2.20±0.708
자녀·가족관	가정 내 아들 위치	2.33±0.911
	자녀와 부모 관계	2.80±1.050
	가정에 대한 의식	3.56±0.671
	계	2.95±0.648

3. 조사도구의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20개 문항의 질문을

요인분석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추출된 2개 영역의 Varimax 회전 요인 분석결과 요인 부하량이 0.5이상인 되지 않는 두 개의 항목을 제거하고, 총 18항목을 3개의 요인(eigenvalue 1이상)으로 추출하여 각 성역할에 대한 요인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 결과 성역할태도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940(사회에서의 성역할 0.895, 가정에서의 성역할 0.868, 양육에서의 성역할 0.749)이었다.

남녀 대학생들의 자녀·가족관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12개 문항의 질문을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항목에 의한 3개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65.62%이었다. 추출된 2개 영역의 Varimax 회전 요인분석결과, 총 12항목을 3개의 요인(eigenvalue 1이상)으로 추출하여 각 자녀·가족관에 대한 요인으로 나누었다. 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 결과 자녀·가족관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835(가정 내 아들 위치 0.846, 자녀와 부모 관계 0.728, 가정에 대한 의식 0.608)이었다.

4. 자녀출산의도에 따른 성역할 태도, 자녀·가족관

출산의도에 대해서는 여성은 3.11점, 남성 4.03 점을 보이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자녀 출산에 대한 의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녀출산에 대한 의도를 그룹별로 나누어 성역할 태도와 자녀·가족관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3> 성역할 태도 요인분석

구분	문항	요인1	요인1	요인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신뢰도	계수			
성역할 태도	남녀가 함께 일하는 부서에서 책임자는 남성이 되는 것이 낫다	.770	.228	.267	사회에서의 성역할	.895				
	여성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이나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것이 낫다	.757	.172	.137						
	남성이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688	.106	.294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직업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659	.388	.061						
	여성의 성공이란 자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남편이 성공하도록 잘 내조하는 것이다	.618	.468	.256						
	여성은 어려운 대화보다 가벼운 대화를 좋아한다.	.611	.279	.129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하는 것을 좋아 한다	.584	.268	.236						
	남성은 여성에 비해 리더십 수행능력이 우수하다	.567	.364	.287						
	아내가 직업을 가졌더라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아내 책임이다.	.347	.733	.125				가정에서의 성역할	.868	.940
	집안일은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	.320	.729	.263						
	부인이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면 남편의 자존심은 손상당한다.	.077	.646	.225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하는 것이 좋다	.514	.638	.172						
	여성이 자신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족과 갈등을 일으킬 때에는 포기해야 한다	.287	.585	.383						
	취업여성은 전업주부에 비해서 자녀와 애정적이고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117	.190	.729				양육에서의 성역할	.749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은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	.155	.348	.724						
여성은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 할 때 가장 행복하다	.265	.294	.620							
여성이 임신하였을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	.479	.015	.594							
고유값		9.006	1.228	1.008	KMO : .943 Bartlett의 구형성검정 $\chi^2=3377. p=.000$					
누적분산		47.399	53.865	59.169						

<표 4> 자녀·가족관 요인분석

구분	문항	요인1	요인1	요인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신뢰도	계수
가족·자녀관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은 꼭 아들이어야 한다	.836	.146	.102	가정 내 아들 위치	.846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보다 시댁의 일을 우선해야 한다	.827	.147	.064			
	재산상속시 다른 자녀보다 장남이 더 많이 받는 것이 타당하다	.813	.047	.261			
	아빠의 성씨를 따르는 것(호주제)은 꼭 필요하다.	.642	.372	.149	자녀와 부모 관계	.728	.835
	자녀 교육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시켜야 한다	-.114	.744	.220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도 된다	.318	.701	-.014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한다	.231	.692	.267			
	자녀가 있으면 노후 의지가 된다	.402	.573	.123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개인을 희생해서라도 가족 전체의 의견을 더 중시해야 한다	.189	.160	.681	가정에 대한 인식	.608	
	가족은 개인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88	.316	.675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이 바람직하다	.145	.024	.628			
가족의 화목을 위해 가장의 권위는 필요하다.	.333	.102	.590				
고유값		4.349	1.635	1.123	KMO : .844 Bartlett의 구형성검정 $\chi^2=1341.531 p=.000$		
누적분산		36.238	49.867	59.226			

출산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룹은 성역할 태도와 자녀·가족관의 모든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면서 전통적인 가치관 성향을 보였다. 반면에 출산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룹에서는 성역할과 자녀·가족관의 모든 문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를 출산할 의도가 매우 크거나 보통으로 있는 남녀 대학생들은 성역할과 자녀·가족관에 있어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5.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들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출산의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역할 태도와 자녀·가족관 관련 조사척도들의 구성요인과 개인적 특성의 배경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표 7>과 같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출산의도가 있는 경우를 '1', 출산의도가 없는 경우를 '0' 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최종 추출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4개(가족·자녀가치관 중 가정 내 아들 위치, 자녀와 부모 관계, 가정에 대한 인식과 성역

할 가치관 중 가정에서의 성역할태도)로 나타났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정 내 아들 위치에 대하여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대상자보다 출산의도가 1.8배 낮았고(p=0.000), 자녀와 부모 관계에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대상자보다 출산의도가 1.91배 낮았으며(p=0.000), 가정에 대한 인식이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대상자보다 출산의도가 1.94배 낮았다(p=0.000). 성역할 태도에서는 가정에서의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대상자의 출산의도가 2.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4).

본 연구에서 최종 추출된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해 본 결과, -2LL값은 95.393 이었고 Model Chi Square 값은 171.943(df=4, p=0.000)로서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그 적합성이 입증되었다. Hosmer & Lemeshow 검정에서 Chi-Square = 5.515(df=8, p=.701)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Nagelkerk's R²=0.776으로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이에 대한 설명력은 77.6%이다.

<표 5> 출산의도에 따른 성역할 태도

요인	그룹	통계량			F	p	Scheffe's test
		빈도	평균	표준편차			
직업에서의 성역할	출산의도 없음(a)	71	-.32	.79	7.234	.001	a*b: b*c c>a
	출산의도 보통(b)	110	-.07	1.02			
	출산의도 있음(c)	147	.21	1.04			
가정에서의 성역할	출산의도 없음(a)	71	.04	1.06	.532	.588	
	출산의도 보통(b)	110	-.09	.97			
	출산의도 있음(c)	147	.03	.99			
양육에서의 성역할	출산의도 없음(a)	71	-.38	.98	10.999	.000	a*b c>a,b
	출산의도 보통(b)	110	-.09	.96			
	출산의도 있음(c)	147	.26	1.00			

<표 6> 출산의도에 따른 자녀·가족관

요인	그룹	통계량			F	p	Scheffe's test
		빈도	평균	표준편차			
가정 내 아들 위치	출산의도 없음(a)	72	-.30	.90	9.067	.000	a*b c>a,b
	출산의도 보통(b)	113	-.14	.94			
	출산의도 있음(c)	156	.24	1.04			
자녀와 부모 관계	출산의도 없음(a)	72	-1.80	.99	46.549	.000	a:b:c c>b>a
	출산의도 보통(b)	113	-.06	.80			
	출산의도 있음(c)	156	.42	.89			
가정에 대한 인식	출산의도 없음(a)	72	-.76	1.18	48.450	.000	a:b:c c>b>a
	출산의도 보통(b)	113	-.14	.82			
	출산의도 있음(c)	156	.45	.76			

<표 7> 조사대상자들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B	S.E.	Wald	p	Odds ratio	95% CI
가정 내 아들 위치	-1.618	.381	18.012	.000	.198	.094 .419
자녀와 부모 관계	-2.382	.398	35.915	.000	.092	.042 .201
가정에 대한 인식	-2.732	.491	30.997	.000	.065	.025 .170
가정에서의 성역할	.822	.334	6.039	.014	2.275	1.181 4.382
상수	-1.453	.310	21.942	.000	0.000	

-2 Log Likelihood = 95.393

Model Chi-Square = 171.943 df=4 p= 0.000

Nagelkerke R² = 0.776

Hosmer와 Lemeshow test : Chi-Square = 5.515 df=8 p=.701

IV. 고찰 및 결론

한국사회의 저출산현상은 가치관 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 중 자녀·가족관과 성역할 실태를 분석하여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출산의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출산의도는 3.35±1.142로 나타

나 보통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19] 결과에서도 1991년 조사에서는 90.3%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했으나 1997년에는 73.7%로 감소하였으며, 2003년에는 더 줄어서 54.5%만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

둘째, 성역할 태도는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0± 0.708). 특히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사회에서의 성역할 태도(2.08±0.750)'는 매우 진보적인 것으로 분석되

있으며, '가정에서의 성역할(2.14±0.799)'과 '양육에서의 성역할(2.50± 0.795)' 또한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임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0]에서도 부부의 역할 구분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보고하여 본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성역할 태도는 출산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역할 태도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윤소영[12]은 긍정적인 성역할 태도가 출산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삼식[6]도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고, 가족 내 성분업적 역할관은 기혼여성의 실제 출산수준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Kunzler[21]는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성별분업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가사, 육아 부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출산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Chesnais[22]는 개발 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는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적인 성공에 대해서도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가치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성평등 의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조사대상자들의 성평등 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 의식은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3] 조사의 성역할 태도에

서도 남녀 학생별로 부인의 육아전담 찬성태도가 남학생(19.0%)이 여학생(8.9%) 보다 월등히 높았고, 자녀관에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정적 태도는 여학생(21.8%)이 남학생(13.2%)보다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도 출산률 저하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라는 결과를 보여 여성의 사회적인 성공을 바라보는 남녀의 가치관 차이가 저출산을 유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자녀·가족관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2.95±0.648)을 보였으며 하위영역에 대해 파악한 결과, '가정 내 아들 위치'는 2.33±0.911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와 부모 관계'는 2.80±1.050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가정에 대한 의식'은 3.56±0.671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질수록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삼식[6]의 연구에서도 인구사회학적 사회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자녀필요성, 혼전동거, 이혼, 자녀효용, 성분업적 역할 등에 관한 가치관 자체도 출생아수 결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들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4개가 최종 추출되었는데, 자녀·가족관의 하위영역 중 '가정 내 아들 위치'에 대하여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대상자보다 출산의도가 1.8배 낮았고(p=0.000), '자녀와 부모 관계'에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출산의도가 1.91배 낮았으며(p=0.000), '가정에 대한 인식'이 진보적인 경우 출산의도가 1.94배 낮았다(p=0.000). 성역할 태도에서는 하위영역 중 '가정에서의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대상자의 출산의도가 2.28배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4$).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가족가치관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치관 형성이 시작되는 유소년 시절부터 가족가치관을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확립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녀를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가족 친화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 가치관에 관한 독립적인 인구교육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즉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연계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녀 간 성역할 의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 내 성평등을 위해서는 출산·양육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사회적으로는 승진이나 보상체계 등에서 불평등이 근절되는 직장문화의 확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상자들의 출산의도를 높여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가족가치관이 결혼과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성평등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립되는 동시에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 수반되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가치관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에 비해 남자대학생들의 가족가치관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더불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가치관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대학생들의 주

관적이며 인지적인 차원의 변수만을 고려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통계청(2010),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2.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3. G. Hondroyiannis, E. Papapetrou(2000), "Sources of Output Volatility in Greece", *Ekonomia, Cyprus Economic Society and University of Cyprus, Vol.4(2);156-172.*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 보건복지부.
5. 새로마지플랜 2015(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보건복지부.
6.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Vol.26(2);95-140.*
7. 강숙경, 고정자(1996), 가정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14(1);85-95.*
8. 은기수(2006),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성별 및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Vol.18(3);1-31.*
9. 김승권(2004), 한국사회 출산율 변화의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Vol.27(2);1-34.*
10. I. Ajzen(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0;179-211.*
11. 윤소영(2005),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 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3(2);159-166.*
12. 이삼식(2011), 2011년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Vol.171;59-68.*
13. 이삼식(2007), 저출산영향평가 도입 방안, *보건복지포럼, Vol.130;58-81.*

14. 박효정(2007), 출산·가족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내용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포럼, Vol.124;59-68.
15. 한경미, 정혜선(2010), 계획적 행위이론을 적용한 종합병원 간호사의 출산의도 관련요인, 산업간호학회지, Vol.19(1);41-49.
16. 강명근, 라송주, 류소연(2008), 일부 대도시 지역 고등학생의 결혼 및 출산의도와 관련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Vol.12(2);212-227.
17. 이정우, 정중희(1984),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1);67-78.
18. 유계숙, 유영주(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Vol.40(5);79-94.
19. 김승권(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24;20-582.
20. 공태현, 임정도(2011), 가임여성의 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보건의료산업학회지, Vol.5(3);41-52.
21. J. Künzler(2002), "Path towards a modernization of gender relations, policies, and family building", Schulze, H-J, et. al.(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Vol.2;Problems & Issu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252-298.
22. J.C. Chesnais(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22(4);729-739.
23. 이삼식 외 8인(2006),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01-02;27-395.
24. 김혜숙, 박재성, 조은주(2011), 보건의료계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보건의료산업학회지, Vol.5(2);131-146.

접수일자 2012년 1월 25일

심사일자 2012년 2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9월 15일